



“깊은 성찰서 비롯되는 체질개선 우리를 지켜 줄 가장 큰 버팀목”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신년사

‘민첩한 의사결정’ 등 강조
“문제 숨기지 않고 수면 위 올려야
리더들 앞장서서 치열업 해달라”

“우리를 지켜줄 가장 큰 버팀목은 바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되는 체질 개선입니다.”(정의선 회장 2026년 신년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5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현대차그룹 2026년 신년회에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된 체질 개선’과 ‘민첩한 의사결정’ 등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올해 그동안 우리가 우려 하던 위기 요인들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리더들은 숫자와 자료만 보는데 머물지 말고, 모니터 앞을 벗어나 현장을 방문하고 사람을 통해 상황의 본질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말하면 부문별로 체질 개선에서 속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아직도 일부 조직은 과거 방식에서 못 벗어난 것 같다”며 “문제를 숨기지 않고 수면 위로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구성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5일 진행된 2026년 신년회에서 그룹 임직원들에게 새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들이 문제를 바로 드러낼 수 있도록 조직 리더들이 앞장서서 치열업(Cheer-up·격려)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회장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전환과 관련해 경쟁사 테슬라의 행보와 비교하며 “우리의 확보 역량이 불충분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열사 간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이 촉발한 환경 변화에 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것은 실패일 수 없다’는 정주영 창업 회장의 지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포티투닷(42dot)과의 협업 체계도 변함없이 유지하며, SDV 기술이 적용되는 주요 개발 프로젝트 역시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 자율주행 합작사 모셔널(Motional)도 2023년부터 아이오닉5 로보택시 실차 테스트를 통해 지속해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올해 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완전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AI 기술 내재화도 강조했다. 정 회장은 “AI는 단순히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기업과 산업의 ‘작동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술이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범용 지능 기술’, 과거의 성공방정식을 무력화시키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기술”이라며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AI 역량을 내재화하지 못한 기업은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수출·AI 시장 호조… 코스피 4400 ‘질주’

한국거래소, 코스피 4457.52 마감
삼성·SK 신고가… 시총 38% 차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45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수출 호조와 인공지능(AI)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 속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데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한 영향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47.89포인트(3.43%) 오른 4457.52로 장을 마쳤다. 지난 2일 4300선을 돌파한 지 1거래일 만에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관련기사 3면>

개인과 기관이 ‘팔자(순매도)’에 나섰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2조3000억원어치를 사들이며 수급을 개선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7.47% 급등해 13만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서는 ‘14만전자’ 안착도 시간 문제라는 평가다. 삼성전자우도 8.05% 급등했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2.81% 상승한 69만6000

원을 기록했다. 장 중에는 ‘70만닉스’(주가 70만원)를 찍었다. 반도체 투톱의 시총(우선주 포함)은 총 1407조원으로 늘면서 코스피 전체 시총(3684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로 커졌다.

반도체주가 질주하는 것은 수출 지표 개선에 실적 기대가 더해지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전년보다 3.8% 증가한 7097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AI 열풍으로 반도체 수출(1734억 달러)이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시장에선 ‘오천피’(코스피 지수 5000) 대한 기대도 커졌다. 지난해 말 주요 증권사 11곳이 내놓은 2026년 연간 코스피 예상 밴드는 3500~5500이며, 연간 코스피 상단으로 제시된 범위는 4300~5500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5000 시대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면서 “2026년 영업이익 전망은 (작년) 9월 초 305조원에서 402조 원대로 96조4000억원 레벨업했다. 예상

보다 강하고 빠른 실적 개선 기대와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 상승세로 1분기 중 5000시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각국의 재정 확대 정책도 큰 손들을 증시로 불러 모은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는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와 증시에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정책 환경 역시 ‘오천피’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한다. 정부는 배당 확대와 상법 개정 등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26% 오른 957.50으로 마감하며 동반 강세를 보였다. 원화값은 미국 달러 대비 2.0원 내린 (환율 상승) 1443.8원으로 오전 장을 마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최근 환율이 펀더멘털과 괴리돼 절하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신하은 기자 godhe@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1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반도 평화·한한령 해제 등 韓·中 현안해결 물꼬 텃다

李 대통령-中 시진핑, 정상회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그동안 막혀 있던 양국의 현안 해결에 물꼬를 텃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개최됐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이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현지시간으로 4시30분쯤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 일정을 차례로 소화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 복원’과 ‘경제 협력’이었다. 양국 정상은 공급망 안정과 문화 콘텐츠 교류 등 민생 직결 분야에서 상생 모델을 모색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설치 문제, ‘한한령’(한류 제한 조치) 해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도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담을 통해 양국은 총 15건의 MOU를 체결했다. 주로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를 위한 것이다.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은 ‘원-위안 통화스와프’ 체결에 합의하고 경제·치안분야 등 여러 분야의 MOU를 체결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양국 간 정치·신뢰와 전략적 대화 채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

삼성·LG·현대 등 ‘총집합’ 미래기술 선택

美 라스베이거스 ‘CES2026’ 개막
전세계 150개국, 4500개 기업 참가

최신 제품과 미래 기술이 총망라된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2026’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관련기사 4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리사 수 AMD CEO 등 글로벌 빅테크 거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올해 행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해 나흘간 진행된다. 전 세계 150개국, 4500개 기업이 참가하며 18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첨단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가전·자동차·로봇 기술 경쟁이 두드러진다. 삼성과 LG전자,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등 한국 기업들도 참가해 첨단 기술을 대거 선보인다.

국내 대표 가전 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번 CES 2026에서 대규모 단독 전시관을 마련하고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 생활상을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AI 경험의 대중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AI를 적용해 사용자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AI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온디바이스와 클라우드 AI를 결합한 구조를 바탕으로, 스마트싱스와 원 UI 등 기존 플랫폼을 AI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 <4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메트로 한줄뉴스



▲조국, 김민석 총리 면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
위원 3인 추천키로 /사진 뉴시스
▲이혜훈, 반포 아파트 등 재산 175억6952만원
신고…6년만에 113억원 늘어

▲강훈식 “한한령 해제, 약간의 시간 걸릴 듯…장
기적으로는 기대”
▲병무청 “4급 이상 공직자, 2008년생 자녀 병역
사항 신고해야”

▲김정은 “핵전쟁억제력 고도화…다단한 국제사
변들, 필요성 설명”
▲국힘, 이번주 새신안 발표…청년 중심 외연 확
장 방안 담길 듯